

EXPERT
KNOW-HOW실리콘밸리의
IT 기업문화 탐방기

+ 송원호 MBC 기술기획부 차장

MBC 신사옥 스마트오피스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트위터 같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방송국과는 다른 기업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실리콘 밸리의 신화 구글(www.google.com)

345 Spear St,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IT 회사로 인터넷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유튜브, 안드로이드, 구글글래스, 구글 스트리트뷰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글은 최고의 인재 관리 및 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최근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주변 건물을 렌트하며 확장(60개 건물)하고 있어 마치 작은 마을 또는 캠퍼스와 같은 구조로 구글 캠퍼스라 불린다. 업무를 위해서 다른 동(건물)으로 이동 시에는 구글 자전거로 이동을 한다.



구글 자전거:
건물 이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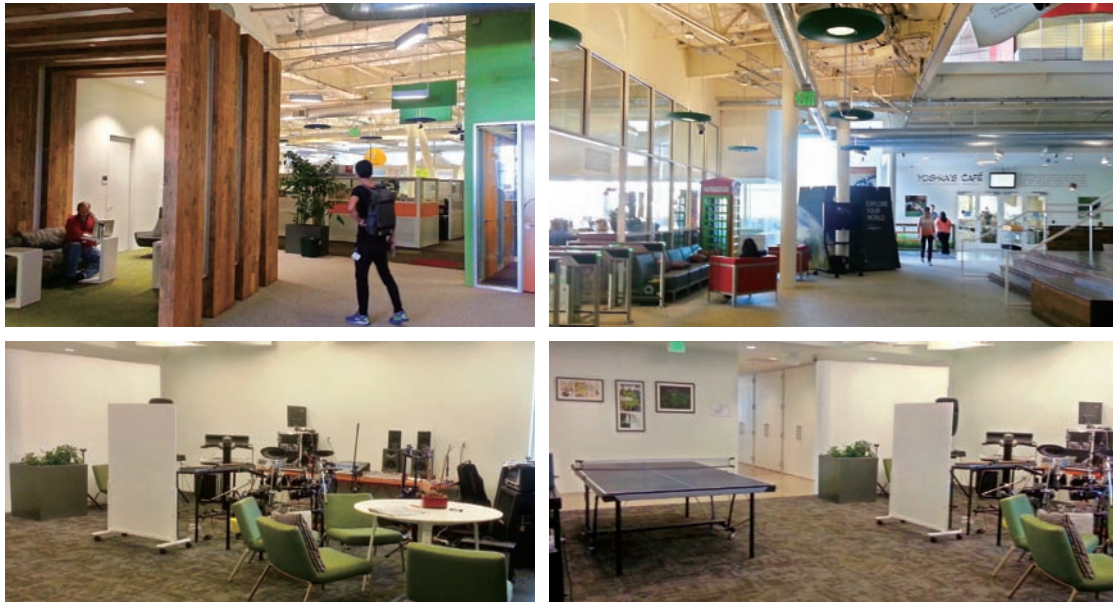
이런 건물이
60개나 있다

구글 자전거는 별도의 시건장치 없이 운영되다 보니 분실이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구글에서는 첫 번째, 구글 자전거 제도를 폐지, 둘째, 분실되어도 운영에 별 영향 없게 직원들로 하여금 싼 값에 구글 자전거를 개발하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이에 직원들 스스로가 두 번째 안을 선택하여 현재의 구글 자전거가 탄생,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자기 업무가 아

하지만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참여로 소소한 아이템이 지속적인 도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멋지고 실용적인 Creation이 탄생되는 것에 대한 구글의 직원을 믿고 기다려주는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불편함이 없는 직원 라운지

60개 건물마다 곳곳에 직원라운지가 배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며, 커피 음료, 과일, 스낵 등이 늘 서비스되고 있다.



라운지 시설은 사진에서 보듯이, 직원이 직접 시설물에 대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음악 및 밴드 관련 모임을 만들겠다고 구글에 신고를 하면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오며, 이에 그 지원금으로 악기 및 장비를 사서 라운지에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조금은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본인들에 적합한 공간을 사용자가 꾸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 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글 직원식당은 전 세계 구글과 소통하는 토론의 장으로

직원식당은 평상시는 회의 공간으로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경영자와 모든 스텝에 직접 또는 화상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나 직원들이 주에 선정한 TOP 5 질문을 경영자에게 질의하고 경영자는 답변하는 소통의 장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방송 장비도 배치되어 있다. 처음 시행했을 때는 CEO가 참석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매주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놀라운 일이며 구글을 통해 생긴 트위터, 페이스북 등 IT 기업문화의 모태가 바로 여기 토론의 장인 것이다.

구글 직원식당, 매주 목요일마다 CEO와 전 직원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구글 지사의 직원도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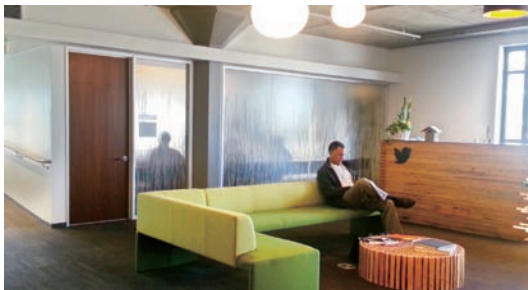
3년 만에 150명에서 2000명으로 커진 트위터(www.twitter.com)

1355 Market Street #900 San Francisco, CA, USA에 위치한 트위터는 “트위터”라고 알려진 인터넷 SNS 서비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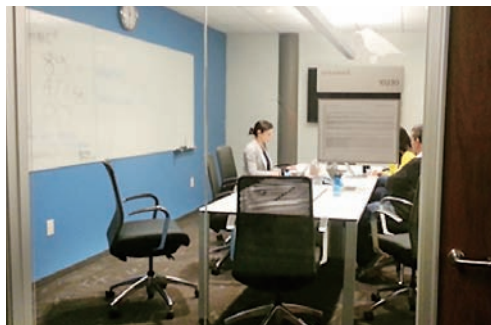
Follow가 핵심인 트위터는 소통과 개방성, 그 파급력으로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트위터 조직 자체도 확장이 되어 현재의 새집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좁은 공간 문제가 바로 이슈화되었다고 한다.

트위터는 “새가 짹짹이다”라는 뜻으로 트위터 본사의 리셉션은 나뭇가지 원

목마감 등을 이용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사무실 안도 곳곳에 코퍼레이트 컬러(나무색)와 트위터 상징인 ‘새’ 패턴 등으로 트위터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고 있다.



또한 사무공간은 오픈 오피스로 낮은 파티션과 간접 조명은 공간에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회의실은 글라스 보드, 코퍼레이트 컬러, 펜던트가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다. 회의실마다 시계가 있어 효율적인 회의시간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글에 비해 공간적인 규모가 작지만 효율적으로 직원의 동선 및 업무공간을 배치하였으며 구글의 사무환경 문화에 영향을 받아 곳곳에 라운지가 배치되어 있고 음료와 간단한 스낵, 과일 등을 늘 제공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한편에 작은 게임 룸이 배치되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가 방문, 게임룸에 있는 농구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최고의 식자재로 만들어진 트위터의 식당

트위터의 직원식당도 역시 평상시는 오픈된 회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며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골라 먹는 메뉴 또한 풍성하다. 아마도 전체 메뉴를 다 먹어보려면 며칠을 여기서 머물러야 할 것 같다. 다양한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주도 제공되고 있다.



일부 구글의 영향은 받았지만

구글 출신의 임원이 많아 트위터의 직원 복지 시스템의 문화도 구글과 비슷하여 구글처럼 최고경영자와의 소통하는 모임을 이곳 트위터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규모와 서비스 영역의 차이로 트위터만의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소통을 서비스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다문화가 섞여 있는 트위터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금도 그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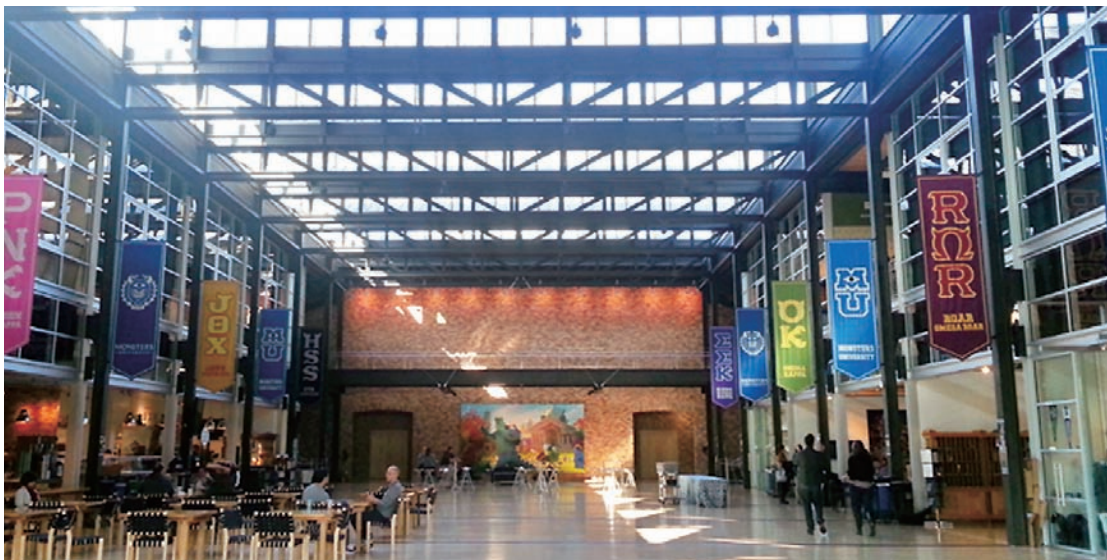
최고의 사무공간과 환경을 자랑하는 Pixar(www.pixar.com)

카, 몬스터대학교 등의 디즈니만화영화로 많이 알려진 픽사는 1200 Park Ave, Emeryville, CA, United States에 위치하고 있다. 픽사도 구글처럼 픽사 캠퍼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온수 수영장 및 헬스센터, 법무팀(외국인 채용으로 취업비자 등의 상담이 많다고 함)을 별도 건물로 배치하였고, 또한 픽사 아카데미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기술적, 스토리관련 픽사만의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직원들의 출퇴근도 자율적이며, 직원들의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주 1회 피크닉 및 월 1회 Trip을 회사에서 지원한다.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주로 요트를 타거나 승마를 탄다고 한다.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개인 사무공간

다른 IT 기업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픽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방을 오피스로 사용하는데 이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및 책상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예산이 책정되어 각각 개성에 맞추어 가장 일하기 좋은 사무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드라마나 예능 등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제작관련 직원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본사건물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좌측사무실은 기술분야, 우측은 예술분야를 배치하여 사람의 두뇌처럼 구성되어 있다. 중앙광장에 카페와 우편물,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근무하는 예술가와 엔지니어들이 언제든지 쉽게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1층의 화장실 위치도 양쪽 끝에 크로스로 배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연한 소통, 사소한 만남을 하게 되어 사소한 대화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있다.



중앙광장 1층에는 픽사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리얼 스케일로 곳곳에 전시되어 있으며, 2층 회의존에는 각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가 전시되어 있어 픽사에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명품 드라마 및 명품 예능에서도 캐릭터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여 픽사에서처럼 전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스토리보드를 통해서도 우리의 콘텐츠를 홍보요소 및 특색 있는 사무공간의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조금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혼자 푸른 잔디를 보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1인 전용 의자, 직원들이 일반적인 회의실이 아닌 집의 거실 같은 느낌의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조금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과 언제나 자유롭게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부엌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

기타 및 아날로그 감성

전체적으로 원목우드, 브릭, 스틸, 스톤 등 원자재에 마감을 그대로 사용하여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친숙하고 친환경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처음 접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포근해지며 여유가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또한 아직도 이메일보다는 우편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곳에는 문서 분류 또는 우편함이 있어 디지털 시대에 편중된 우리에게 아날로그의 추억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마무리

신사옥 사무공간 혁신 업무를 담당하여 세계 최고 기업의 사무공간 벤치마킹을 통해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왜 기업들이 사무공간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공간의 혁신과 이를 지속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가 관리를 위한 획일적인 사무공간이 아닌 경쟁력의 핵심인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를 제고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방송국 여기저기에 반영하여 2014년부터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래서 사랑받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